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약간 더움

제목 : 재미있는 하루

오늘 일어나서 밥을 먹고, 양치하고 구멍을 했다.
 구멍하고 옷갈아입고, 피구대회하고, 외서 또구멍 하
 고 나가서 놀았다. 노란 가방에 게토레이, 야구공,
 두산 야구풍선, 이있고 모자도 쓰고갔다 나는 글리브,
 배트는 없다. 하지만 나는그냥 응원했다.
 모인사람은, 청진욱, 안준형, 박현규, 최주영, 강규현,
 김현우, 정재욱, 임태규, 이름 모르는아이 3명, 나까
 지 함해서 총 11명 그중 나, 재욱이, 현우 빼서 8명.
 4대4. 나는 응원하다 지쳐서 진욱이 자전거
 빌리고 집으로 가서 딱지를 가져왔다 그리고 재욱
 이랑 쳤는데, 내가 2개를 따고, 재욱이는 5개 아
 니면 7개를 따냈다. 내가 졌다. 그리고
 내 동생 민엽이 네가서 같이 놀았다. 처음엔,
 키마 라는 놀이, 알까기, 브루마블 순으로했다.
 브루 마블이 끝나고 집에가서 샤워하고 누나가
 글리브, 공을 줬다. 공에는, 직구, 커브, 슬라이드, 포크를
 어떻게 던지는지 나와있다! 정말 좋다.